

한비,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

26일 임시주총 열어 ... 현경영진 95년3월까지 유임

한국비료가 삼성정밀화학으로 회사명이 바뀐다.

삼성그룹은 7월 한국비료의 경영권을 27년만에 되찾은 뒤 그동안 실시해온 실사작업을 마무리 짓고 10월26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명을 삼성정밀화학으로 바꾸는 한편 조직도 팀제를 도입, 정식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삼성은 특히 오는 2000년까지 모두 1조원을 투자, 이 회사를 세계 초일류 정밀화학 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경리·기획·관리부문 등 핵심부서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은 유경중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95년3월 정기주총때까지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와함께 지난 9월15일 한국비료에 경영지원실을 신설한데 이어 실사팀장이었던 이승웅 삼성종합화학 부사장을 비롯, 이사 부장급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을 한국비료로 인사발령했다.

삼성은 이번에 한국비료의 회사명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불소 실리콘 등 정밀화학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 기존 연산 5만톤규모의 염소공장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투자도 대폭 확대, 현재 매출액대비 2%선인 연구개발투자비를 2000년초까지 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 7월15일 산업은행 지분 34.6%를 2300억원에 인수해 기존 지분 32.6%를 포함해 모두 67.2%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화학저널 1994/10/17>